

『5시 고양이』 독후 활동지



이향안 글 | 김주경 그림
아이움북스 | 108쪽 | 초등3~4학년 | 달빛문고 8

“

5시 ‘땡’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끼 고양이!
도대체 주인은 누구일까?
새끼 고양이의 사연을 쫓다 만나게 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

활동

고양이가 만난 이웃들

<5시 고양이> 속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는 이웃들이 있어요.

모두 한 동네의 이웃이지만 새끼 고양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알지 못하던 사이였지요. 이들은 새끼 고양이의 주인을 찾기 위해 서로 편지를 전하고 힘을 합치며 친구가 됩니다. 책 속의 이웃들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고양이가 12시에 찾아가는 노란 대문 집에서, 고양이의 이름은 '단짝이'이지요. '단짝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에 담긴 할머니의 사연은 무엇인가요?

2. 우람이가 놀양이를 처음 만난 날, 우람이는 학원에 너무나 가기 싫었지요. 학원 버스 소리조차 괴물 소리처럼 두려웠어요. 여러분도 우람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을 써 봅시다.

3. 다섯시가 되면 고양이는 봄봄이네 네일숍을 찾아갔지요. '5시 야옹이'와 봄봄이의 첫 만남이 기억나나요? 특별한 그날에 대해 써 봅시다.

4. 고양이가 아홉시가 되면 찾아간 생선가게. 그곳에서는 '먹보'가 되어 생선가게의 주인 아저씨 아줌마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생선가게 아줌마 아저씨의 사연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처럼 낯선 존재로부터 뜻밖의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 생선가게 아줌마 아저씨의 사연:

● 나의 경험:



활동3

살만한 세상 기자단

<5시 고양이>는 세상이 조금만이라도 따뜻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뉴스 속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소식보다는 무섭고 슬픈 소식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5시 고양이>속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살만한 세상 기자단'이 되어 '세상이 참 살만하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이야기들을 찾아내 세상에 알려 보면 어떨까요?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기사를 써 봅시다.

1. 내가 직접 인터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서 이야기를 직접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웃들이나 경찰관 분들,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직접 인터뷰해 보세요. 지역 신문이나 학교 신문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여러 미디어를 통해 접한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유튜브, TV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야기를 찾아보고 기사로 재구성해 봅시다.

살만한세상신문

제목: _____

()년 ()월 ()일 ()기자

A series of ten horizontal dashed lines on a light gray background, intended for handwriting practice.



활동4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는 법

나를 생각해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슬프고 힘이 들어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책에서 발췌한 <보기>의 글을 읽고 답해 봅시다.

(A)그래도 이제 봄봄이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고양이는 그 속에서도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는 법을 터득해 나갈 테니까. 자신을 생각해 주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봄봄이가 그랬고, 우람이가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가 그랬고, 생선 가게 아저씨가 그랬던 것처럼.

(B)새끼 고양이에게 어미와 이별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마음껏 슬퍼하고 나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겠지.

1. 이웃들은 엄마를 잃은 고양이를 노란 대문 할머니 댁으로 입양 보냈지만. 이내 고양이가 원래 살던 공터로 돌려보내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봄봄이, 우람이, 할머니, 생선 가게 아저씨는 모두 각자의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여러분도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나요? 그때의 경험을 써 봅시다.

3. (B)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슬퍼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요. 마치 내가 나를 '응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힘이 들 때 스스로를 어떻게 응원하나요? 여러분의 자신만의 '응원법'을 소개해 봅시다. 음악 듣기, 오래 걷기, 수영하기 등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이라도 좋습니다. 자세히 써 봅시다.

나의 나 응원법:

.....

.....

.....

.....

나를 응원하고 나면 달라지는 것들:

.....

.....

.....

.....



활동5 5시 고양이의 편지

고양이 덕분에 이웃들은 편지로 마음을 전하며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몰랐던 서로의 속마음과 각자의 사연도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고양이의 편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네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고양이가 편지를 쓸 수 있다면,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여 써 봅시다. (이웃들 중 한 사람을 정해도 되고,

모두에게 한마디씩 말을 건네도 좋아요. 편지 형식은 자유입니다.)

